



근대건축 보존과 활용의 시금석

# ‘서울시립미술관’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로부터 근대건축의 보존과 활용의 성공적 사례로서  
건축환경문화로 선정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은 1895년 조선의 최초의 재판소인 평리원이 위치했던 곳으로 대법원으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사법부가 강남으로 이전한 후 미술관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건축물의 역사성과 장소성이 부각되도록 건물의 정면을 보존하는 건축물로 새롭게 탄생되었다.

본 건축물의 가치는 2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상자형의 단순한 외관을 지닌 건물로 상징되는 모더니즘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직전에 건축된 마지막 고전주의 양식건축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70년 전 건축양식과 현대적 미술관의 건축양식이 공존하고 있으면서도 둘 사이의 상충되는 건축의 차이를 매개공간의 도입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한 지혜로움이 담겨 있는 건축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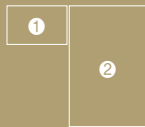
미술관 현관부를 지나 내부홀로 들어서면 바깥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햇살로 인해 그 밝음이 실내에서 있음을 잠시나마 잊게 해준다. 햇살이 쏟아지는 내부공간이 신·구 구조물 사이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건축가의 안배가 담긴 곳이다.



#### 작품 개요

- 위 치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 용 도 : 미술관
- 공사기간 : 1999년 ~ 2002년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 설 계 사 : 삼우설계, 청림구조,  
삼우설비컨설팅, 코덕엔지니어링,
- 시 공 사 : (주)한일건설

- ① 입구에서 본 측면
- ② 햇빛이 눈부신 내부공간







**선정사유 및 작품설명 : © 안창모 (경기대 건축대학원교수)**

서울시립미술관의 모태가 된 구대법원 건물은 해방전에는 경성재판소로 사용되었고, 구경성재판소가 위치한 곳은 1895년 조선의 근대식 재판소인 평리원이 위치한 곳이었다.

강남개발에 따른 서울시의 구조개편 계획의 일환으로 사법부가 1996년 10월 서초동으로 이전한 후 구대법원 건물을 미술관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었다. 미술관으로의 리노베이션을 위한 현상공모를 통해 당선안이 결정되었으나 심각한 건물의 노후화로 건물을 온전하게 보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건축물의 역사성과 장소성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건물의 정면을 보존하면서 미술관의 기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서울시립미술관이 탄생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공동주거를 중심으로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역사도시의 경관보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문화재 주변 건축물의 수명 연장을 위한 리노베이션이 점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각종 리모델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우리는 경제개발기를 거치면서 건축물의 수명이 물리적으로 천수를 다하기 보다는 사회적 수명과 경제적 수명으로 결정되는데 익숙해져 있고, 이로 인해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학습받은 바 있다.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 증가는 경제개발기의 패러다임에 일정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립미술관은 요절하곤 했던 건물에게 천수를 누리면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외과수술이 성공적으로 행해진 예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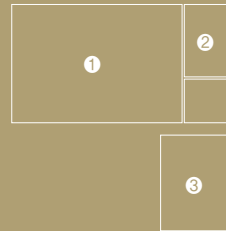
역사가 갖는 물리적인 시간의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에서 근대는 사라졌다. 우리가 배운 역사는 조선시대에서 일제강점기를 가볍게 뛰어넘어 오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건축의 문제는 일반사의 근대 뛰어넘기보다 훨씬 심각해서 건축에서 근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정동은 서울의 여타 역사문화 환경과 다른 독특한 측면을 갖고 있다. 정동이 갖는 역사문화 환경의 특징은 정동에 위치한 각국 공사관과 함께 덕수궁에서 잘 나타난다. 서울에는 5개의 궁궐이 있지만, 여타 궁궐과는 달리 대한제국기의 정궁이었던 덕수궁에는 근대건축이 유난히 많이 지어졌던 곳이다. 그래서 정동에는 근대국가 건설의 의지가 담겨있고, 정동은 근대적 교육기관과 각종 외국공관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교회 등 근대 문화의 삶의 쉼터가 누적되어 오늘에 살아 있는 곳으로, 서울에 다양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역사문화 환경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바로 그 정동에 시립미술관이 근대의 틀을 넘어 오늘의 삶에 밀착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서울시립미술관은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모범적 사례로 역사를 기억하면서 현대적 기능을 수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근대건축 보존과 활용의 시금석이 되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문화재는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된다. 가치있는 문화유산은 현 세대의 논리로 문화재로 보존되지만, 문화재의 사용은 후

- ① 전시실 3층의 카페로 박물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 ② 덕수궁이 내려다보이는 3층 카페의 창
- ③ 공간으로 돌출된 계단





- ① 전시실로 오르는 계단
- ② 정면에서 바라본 미술관
- ③ 측면에서 바라본 미술관



속세대의 몫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화재를 통해서 기성세대의 기억과 경험 그리고 교훈이 후속세대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근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기억시킬 것인가?”가 핵심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은 그 해법의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취재/사진 • Willy

